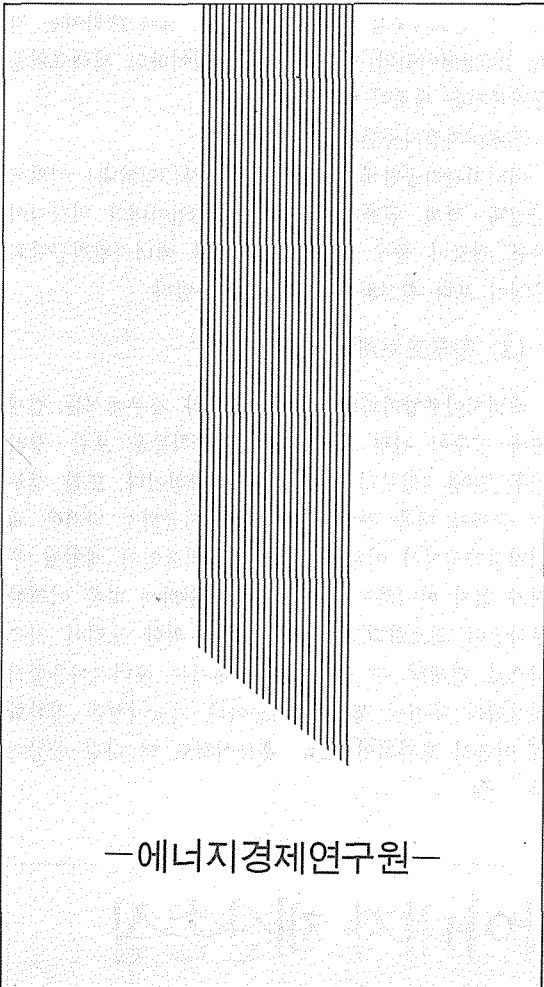


### 〈OPEC의 下流部門 진출과 정책〉

- 산유국은 1960년대 후반 카르텔 결성을 통해 上·下流 부문분리(Disintegration)을 단행한 바 있으나, 최근들어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下流部門에의 진출을 통하여 上·下流部門 再統合化(Reintegration)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과 그 의미 (요약)



—에너지경제연구원—

-OPEC의 下流部門진출은 1960년대 국내精油 및 판매로부터 시작되었음. 그 후 수출정제의 域內 上·下流 통합단계를 거쳐 1980년대에 들어와 역외 下流部門통합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진출중인 OPEC국가는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리비아등임. 이중 쿠웨이트와 베네수엘라의 진출이 가장 두드러지며, 이들 국가는 가능하다면 경영권 획득을 통하여 시장몫의 확보는 물론 제품판매가격 결정에까지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음

- 현재까지 산유국은 정유·판매회사지분의 완전 또는 부분매입을 통하여 190萬B/D의 西歐 原油시장을 확보하였음. 이러한 진출열세는 투자기회가 있는 한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짐. OPEC의 하류시장몫은 1990년도에 약 300萬B/D로 예상되어 自由世界 전체 石油수요의 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OPEC의 소비국 下流部門진출은 아직까지 제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우선 합작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제한을 받고 있음. OPEC는 油價 하락에 따른 수익의 감소, 국내투자, 대외결제 등으로 여유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음.

• OPEC의 하류부문 진출동기는 지역적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면을 보이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최우선 동기는 原油販路보장과 精油·販賣마진의 획득임. 이와 더불어 OPEC는 가능하다면 경영권획득을 통하여 下流部門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음.

-OPEC의 소비국 下流部門진출은 시장몹을 보장하는 최선의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음. 최근 OPEC쿼터제도의 유명무실화에 따라 OPEC 原油수요를 훨씬 상회하는(10月末 현재 약 400만B/D초과) 실질 산유량의 판매에 부심하고 있는 OPEC로서는 原油판매수입의 확보를 위해 당분간 가능성이 없는 油價회복보다는 下流部門 투자를 통한 신규수요확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또한 OPEC는 해외下流部門 진출을 통하여 정제마진의 획득을 도모하고 있음. '60~70년대 上·下流부분 분리후 하류부문은 독자적 이익센터(Profit Center)로 성장하여왔음. 그동안 精製油수요의 다양화 및 증대, 그리고 정제효율의 향상으로 정제마진은 안정폭을 유지하여 왔음.

- OPEC의 下流部門진출은 OPEC의 역할이 존립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동안 OPEC 통제하의 原油공급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OPEC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쇠퇴하여 왔음. 따라서 OPEC 회원국이 自國產原油의 안정적 시장몹의 확보를 위해 합작투자와 같은 개별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OPEC결속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消費國의 대응〉

- OPEC의 下流部門진출에 대해서 소비국의 精油業界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
  - Texaco와 독립계 石油會社들은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그 주된 이유는 산유국과의 합작투자를 통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原油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임. 일부 경쟁력이 약한 獨立界石油會社의 경우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
  - 반면 메이저들은 대부분(Texaco는 제외)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왜냐하면 메이저는 기존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오히려 OPEC의 무분별한 진출로 시장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메이저는 OPEC의 50대 50 경영의사 참여요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음.
- 한편 소비국 정부는 OPEC의 下流部門진출이 아직까지는 공급안정성을 저해하는 정도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

나 예상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OPEC의 下流部門 진출이 확대된다면 소비국 정부는 自國의 에너지정책을 再評價, 규제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소비국이 채택가능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음.

- 투자로 인해 공급구조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 말하자면 특정지역에 대한 과도한 공급의존도를 제한, 공급리스크를 분산시킴.
- 투자지분율에 관계없이 외국투자자의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함.
- 현지정부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
- 공급부족사태에 대비 공급국에게 현물물량의 90일분 비축을 의무화하도록 함.
- 互惠主義(Reciprocity)에 입각 하류부문을 개방하는 대신 진출국의 상류부문의 자산매입을 허용토록 함.

### 〈우리의 對應〉

- 石油輸入의 OPEC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의 석유 의존도가 바뀌지 않는 한 OPEC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더욱 긴밀해질 것은 명확함. 왜냐하면 아시아 등他地域의 공급량은 머지않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안정된 가격의 原油를 장기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산유국과의 하류부문 투자합작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됨.
- OPEC이 國內精油 및 판매업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 원유공급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는 반면, OPEC 타회원국의 태도, 유종 등 경제외적 제약요인이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OPEC의 국내하류부문 진출에 따라 유리한 가격으로 原油를 안정 확보할 수 있는 便益(Benefit)이 있는 반면, 과도한 供給先 편중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의 비용(Cost)을 수반할 것임.
  - 정치적으로는 OPEC 會會員國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음. 말하자면 한 OPEC 회원국과의 합작투자가 다른 OPEC국가와의 장기원유공급조약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
  - 기술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요인은 공급투자대상 油

種, 국내수요구조에 적합한 精油施設의 선택 등임. 예를 들면 特定油種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보유 여부, 그리고 국내시장의 제품별 수요를 감안한 정유 시설 등이 있음.

•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OPEC의 국내下流部門 진출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익만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따라서 초기단계에서의 합작투자결정은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맡기되 기업은 장기적인 시황 예측과 費用/便益分析에 기초하여 합작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만약 OPEC의 국내하류부문진출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는 持分制限,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안과 아울러 호혜원칙에 입각한 하류부문에 투자를 전제로 한 하류부문 투자허용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 □ 石油의 기초지식 □

# 석유제품의 종류



### 1. 자동차휘발유(Gasoline)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며, 옥탄가에 따라 프리미엄 가솔린(고급휘발유)과 레귤러 가솔린(보통휘발유)의 두가지로 나눈다.

휘발유와 공기의 混合氣가 압축에 견디는 성질을 휘발유의 안티노크성, 또는 耐燒性이라고 하며, 이 안티노크성의 고저를 표시하는 척도가 옥탄價이다.

### 2. 제트 油

제트기에 쓰이는 연료로서, JP-4라는 것은 원유로부터의 收率은 높으나, 인화성이 높아 주로 군용기에 사용되고 Type-A는 비교적 인화성이 낮은 등유분으로 되어 있어 민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 3. 나프타(Naphtha)

일반적으로 상압증류에서 얻어지는 重質 휘발유분을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나프타라고 부르고 있으며, 석유화학원료인 에틸렌가스 등의 제조를 위한 분해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 4. 등유(Kerosene)

등유는 가장 먼저 사용된 석유제품이었기 때문에 보통 石油라고 불리워진다.

등유에는 정제된 白등유와 정제되지 않은 茶色등유의 두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가정용의 주방·난방연료

로 쓰이고 후자는 농경용 엔진등의 연료나 기계의 세척 등에 사용되고 있다.

### 5. 경유(Diesel Oil or Gas Oil)

경유는 디젤엔진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Diesel Oil이라고 불린다. 디젤엔진의 연료로서의 중요한 성질에 세탄價가 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휘발유의 옥탄가와 대조적인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유는 과거에 분해하여 연료가스의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Gas Oil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 6. 重油(Fuel Oil)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이 重油이며, 또 원유로부터의 收率이 가장 많은 것도 重油이다.

重油는 輕質중유, 중유, B-C油의 3가지로 분류된다. 경질중유는 도자기 제조용이나 소형디젤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며 중유는 대형디젤엔진의 연료나 보일러연료로 쓰이고 있다. B-C油은 화력발전소의 대형보일러나 외항선의 연료로 쓰이고 있다.

### 7. 潤滑油(Lubricating Oil)

각종 기계류나 엔진 등의 마찰부분에 사용되는 기름을 윤활유라 한다. 소비량은 연료유에 비해 극히 소량이지만, 석유제품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